

예비유아교사의 안전돌봄 실천행위 인식 연구

김세루*
광주대학교 유아교육과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Safety care Practices of Prospective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Se-Ru Kim*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Gwangju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의 안전돌봄 실천행위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G광역시 G대학교 예비유아교사 12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One-way ANOVA와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학년에 따른 예비유아교사의 안전돌봄 실천행위 인식의 전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하위요인인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 및 신변안전', '약물 및 사이버중독', '재난안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반면에 '직업안전', '응급처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안전돌봄 실천행위를 측정하여 안전역량을 신장시키고자 하며, 예비유아교사의 안전에 대한 실무교육 기회 확대, 다양한 매체 개발, 무엇보다 유아교사양성과정에서 안전과 관련한 수업운영과 내용을 토대로 예비유아교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Abstract This study targeted 125 prospective early childhood teachers at G University in G Metropolitan City to investigate their perceptions of safety care practice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One-way ANOVA and Scheffe's post hoc test. As a result of the study,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overall awareness of safe care practices of prospective early childhood teachers according to grad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the sub-factors 'Life Safety', 'Traffic Safety', 'Violence and Personal Safety', 'Drugs and Cyber Addiction', and 'Disaster Safety'. On the other hand,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occupational safety' and 'first aid'. Through these results, we aim to increase safety competency by measuring safety care practices, expand practical training opportunities for prospective early childhood teachers, develop various media, and above all, improve class operation and content related to safety in early childhood teacher training courses. Based on this, we aim to provide basic data to develop a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 education program.

Key Words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Safety care, Practice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안전이란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1]. 즉, 안전한 상태란 위험 원인이 없는 상태이거나 위험 원인이 있다

라도 인간이 손상이나 상해를 덜 받도록 대책이 세워져 있는 상태를 뜻한다. 교육부[2]는 교사는 유아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아의 발달특징에 따른 교육을 계획하고, 물리적 및 심리적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유아를 보호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적절하게 대처할 책임과 의

이 연구는 2023년도 광주대학교 대학 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Se-Ru Kim(Gwangju Univ.)

Email: srkim@gwangju.ac.kr

Received Oct 11, 2023

Revised Nov 20, 2023

Accepted Dec 07, 2023

무를 가져야 한다고 한 바 있다. 이는 교사가 자녀야하는 안전에 대한 인식과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안전사고의 건수가 전체 발생률의 26.4%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3]. 이러한 안전사고는 주위 돌봄 제공자의 관심과 적절한 예방행위를 통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유아기에 영향을 미치는 인적자원은 부모, 교사, 다른 성인이 있다. 특히, 유아교육기관에서 장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유아교사는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적자원이라고 볼 수 있다.

교사의 안전지식 수준과 인식은 안전을 예방하는데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며, 안전지식 수준과 인식이 높을수록 안전사고에 대처하는 실천율이 높아진다[4-5]. 이는 유아교사의 인식과 안전에 관한 지식, 기술, 태도가 매우 중요함을 일컫는다. 이러한 지식, 기술, 태도를 올바르게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유아교육현장에 배치되기 전 사전에 습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즉, 예비유아교사 시기에 안전관련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 경험이 매우 중요함을 의미한다[6].

안전은 실천교육 분야이고 행동의 교육으로 안전에 관한 내용을 이해하고 실천과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 즉 예비유아교사 시기부터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지식 뿐만 아니라 안전에 대한 실천적 태도와 습관을 형성시킬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영유아기 안전사고의 심각성과 예방적 정책의 필요성을 인지한 외국에서는 관련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적극적인 예방정책을 진행하고 있고[7], 우리나라도 교사들의 안전돌봄 실천행위는 반드시 실천해야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이를 위한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다양한 시스템 구축과 정책적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8].

선행연구들[9-13]대부분은 현직교사 및 예비유아교사의 안전에 대한 인식 정도를 알아보는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반면 최근에 2015년

학교 안전교육 7대 영역이 발표 된 이후 각 영역에 맞게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도구개발[14]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안전돌봄 실천행위 정도를 지속적으로 측정하면서 향상시킬 수 있는 도구이다. 기존의 연구가 안전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알아보는 연구에 그쳤다면 이러한 도구 개발로 인해 예비유아교사와 현장에 있는 유아교사들의 안전돌봄 실천행위 정도를 지속적으로 측정하면서 안전에 대한 실천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예비유아교사의 안전역량은 교원양성과정에서 교수방법을 인식하고, 교사가 어떤 교육적 경험을 했는지에 따라 교사효능감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안전교육에 대한 자신감이 교사의 전문성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15]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교원양성기관에서는 아동안전관리와 아동건강교육 등 관련된 교과목을 통해 유아안전교육에 대한 예비유아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16]에 의하면 예비유아교사가 받은 교육이 현직유아교사의 핵심역량을 이룰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경험이 안전인식 및 실천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무엇보다 유아교사는 안전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교사 스스로 안전사고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주변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교사의 전문성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교원양성기관의 안전교육방법의 개선이 요구된다. 따라서 안전돌봄 실천행위인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 및 신변안전, 약물 및 사이버중독,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의 인식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예비유아교사인 1학년~4학년을 대상으로 안전돌봄 실천행위를 측정하여 안전역량을 신장시키고자 하며, 예비유아교사의 안전에 대한 실무교육 기회 확대, 다양한 매체 개발, 더하여 유아교사양성과정에서 안전과 관련한 수업운영과 내용을 토대로 예비유아교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 문제

첫째, 학년에 따른 예비유아교사의 안전돌봄 실천행위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학년에 따른 예비유아교사의 안전돌봄 실천행위 하위요인인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 및 신변안전, 약물 및 사이버중독,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 인식은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연구 대상

연구대상은 G광역시 유아교육과에 재학 중인 예비유아교사 150명을 임의 선정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안전돌봄 실천행위 인식조사를 하였다. 이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의 설명과 함께 동의를 구한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총 125부를 최종 연구자료로 활용하였다. 예비유아교사의 일반적 배경은 [표 1]과 같다.

[Table 1]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Variable	Category	N	%
Grade	Freshman	34	27.2
	Sophomore	30	24.0
	Junior	30	24.0
	Senior	31	24.8
Gender	Male	4	3.2
	Female	121	96.8
Education status of safety care	Yes	91	72.8
	No	34	27.2
Total		125	100.0

2.2 연구도구

예비유아교사의 안전돌봄 실천행위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안전돌봄 실천행위 개발한 도구를[14] 본 연구대상에 적합하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의 구성은

예비유아교사의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 및 신변안전, 약물 및 사이버중독, 재난안전, 응급처치, 직업안전의 7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총 22 문항이며, 5점 평정척도이다. 연구도구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는 [표 2]와 같다.

[Table 2] Question composition and reliability

[표 2] 문항구성 및 신뢰도

Category	Number	Cronbach's α
Life safety	1-5	.71
Traffic safety	6-8	.75
Violence and Personal Safety	9-11	.72
Drug and cyber addiction	12-14	.75
Disaster safety	15-18	.70
First aid	19-20	.74
Occupational safety	21-22	.78

2.3 연구절차

본 연구를 위하여 연구목적의 타당성, 질문지의 문항이해도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대상이 아닌 예비유아교사 1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질문지는 응답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요시간은 5분정도 소요되었다. 본 연구는 2023년 10월 4일부터 2023년 10월 18일까지 2주간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유아교사에게 총 150부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140부가 회수되었으며 회수율은 93.3%이다. 그 중 응답이 누락되거나 중복되는 등 불충분해 연구 자료로 활용하기 어려운 설문지 15부를 제외하여 최종 연구대상은 예비유아교사 125명으로 하였다.

2.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의 일반적 배경 확인을 위한 기술통계를 산출하였으며, 학년에 따른 예비유아교사의 안전돌봄 실천행위를 알아보기 위해 One-way ANOVA를 실시한 후 집단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학년에 따른 안전돌봄 실천행위 인식 차이

[표 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학년에 따른 안전돌봄 실천행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3.95, p<.05$). 집단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Scheffe 사후검증을 한 결과, 전체 안전돌봄 실천행위에서는 1학년, 2학년과 4학년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학년에 따라 예비유아교사의 안전돌봄 실천행위는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Table 3] Differences in perception of safe care practices by grade

[표 3] 학년에 따른 안전돌봄 실천행위 인식 차이

Category	Grade	N	M	SD	F	Scheffe
	Freshman ^a	34	97.94	7.50		
	Sophomore ^b	30	100.77	7.15		
Total	Junior ^c	30	99.33	7.81		
	Senior ^d	31	103.68	4.92	3.95*	a<d
Total		125	100.40	7.19		

3.2 학년에 따른 안전돌봄 실천행위 하위요인 인식 차이

[표 4]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예비유아교사의 안전돌봄 실천행위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학년에 따른 안전돌봄 실천행위 하위요인인 ‘생활안전’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5.71, p<.01$).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Scheffe 사후검증을 한 결과, 1학년과 4학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학년에 따라 예비유아교사의 안전돌봄 실천행위 하위요인인 ‘생활안전’은 차이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학년에 따른 안전돌봄 실천행위 하위요인인 ‘교통안전’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4.49,$

$p<.01$).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Scheffe 사후검증을 한 결과, 1학년과 2학년간, 2학년과 3학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학년에 따라 예비유아교사의 안전돌봄 실천행위 하위요인인 ‘교통안전’은 차이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학년에 따른 안전돌봄 실천행위 하위요인인 ‘폭력 및 신변안전’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4.19, p<.001$).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Scheffe 사후검증을 한 결과, 2학년과 4학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학년에 따라 예비유아교사의 안전돌봄 실천행위 하위요인인 ‘폭력 및 신변안전’은 차이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학년에 따른 안전돌봄 실천행위 하위요인인 ‘약물 및 사이버중독’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7.99, p<.001$).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Scheffe 사후검증을 한 결과, 2학년과 3학년간, 3학년과 4학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학년에 따라 예비유아교사의 안전돌봄 실천행위 하위요인인 ‘약물 및 사이버중독’은 차이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학년에 따른 안전돌봄 실천행위 하위요인인 ‘재난안전’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3.98, p<.05$).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Scheffe 사후검증을 한 결과, 1학년, 2학년과 4학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학년에 따라 예비유아교사의 안전돌봄 실천행위 하위요인인 ‘재난안전’은 차이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학년에 따른 안전돌봄 실천행위 하위요인인 ‘직업안전($F=1.34, p>.05$)’, ‘응급처치($F=2.07, p>.05$)’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학년에 따른 평균점수의 차이는 있으나 통계적으로는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Table 4] Differences in perception of sub-factors of safe care practices by grade

[표 4] 학년에 따른 안전돌봄 실천행위 하위요인 인식 차이

Category	Grade	N	M	SD	F	Scheffe
Life safety	Freshman ^a	34	21.56	2.27	5.71**	a<d
	Sophomore ^b	30	22.50	1.93		
	Junior ^c	30	22.17	2.37		
	Senior ^d	31	23.65	1.64		
	Total	125	22.45	2.19		
Traffic safety	Freshman ^a	34	13.97	1.55	4.49**	a<b b<c
	Sophomore ^b	30	14.93	.25		
	Junior ^c	30	14.03	1.30		
	Senior ^d	31	14.55	1.21		
	Total	125	14.36	1.25		
Violence and Personal Safety	Freshman ^a	34	13.35	1.48	4.19***	b<d
	Sophomore ^b	30	13.00	1.80		
	Junior ^c	30	13.73	1.26		
	Senior ^d	31	14.23	1.06		
	Total	125	13.58	1.48		
Drug and cyber addiction	Freshman ^a	34	14.36	1.14	7.99***	b<c c<d
	Sophomore ^b	30	15.00	.00		
	Junior ^c	30	13.87	1.41		
	Senior ^d	31	14.77	.67		
	Total	125	14.50	1.05		
Disaster safety	Freshman ^a	34	17.65	1.67	3.98*	a,b<d
	Sophomore ^b	30	17.70	2.78		
	Junior ^c	30	17.93	1.89		
	Senior ^d	31	19.16	1.44		
	Total	125	18.10	2.07		
First aid	Freshman ^a	34	8.65	1.32	1.34	
	Sophomore ^b	30	9.00	1.41		
	Junior ^c	30	8.93	1.05		
	Senior ^d	31	9.26	1.13		
	Total	125	8.95	1.24		
Occupational safety	Freshman ^a	34	8.41	1.21	2.07	
	Sophomore ^b	30	8.63	1.10		
	Junior ^c	30	8.67	1.03		
	Senior ^d	31	8.06	.89		
	Total	125	8.44	1.08		

* α .05, ** α .01, *** α .001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학년에 따른 예비유아교사의 안전 돌봄 실천행위 인식이 어떠한지 알아보려고 하였으며 그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년에 따른 예비유아교사의 전체 안전 돌봄 실천행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안전지식을 알아본 연구결과[17]와 부분적으로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년별로 차이가 나타났는데 즉, 1학년과 4학년간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1학년은 4학년보다 안전관련 교육경험이 적은 반면에 4학년은 2학년보다 안전관련 교육경험이 누적화되어 안전돌봄 실천행위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또한 일회성이 아닌 반복적 교육이 필요하며 대학교 입학전부터 매체에서 다루어지는 영상을 본 경험 등 각기 다른 방법으로 경험했을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매체 및 교수방법을 토대로 안정화된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학년에 따른 예비유아교사의 안전돌봄 실천행위 하위요인인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 및 신변안전,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재난안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17][18]의 연구결과를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집단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학년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평균점수를 비추어 봤을 때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수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안전지식의 정도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아짐을 의미하여, 2학년때부터 안전관련 교과목을 집중적으로 배우다보면 몰랐던 지식을 습득하게 될 것이며 경험의 유무에 따라 안전돌봄 실천행위는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 및 신변안전, 약물 및 사이버중독, 재난안전의 결과를 보면 인식의 수준은 높으나 실천할 수 있는 행위를 보면 어려움이 예측된다. 따라서 추후 유아교육현장에서 유아교사와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게 됨을 가정할 때 안전교육관련 교과목의 이수 및 반복적 교육경험을 통해 안전돌봄 실천행위의 수준을 높여나갈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에 ‘응급처치’에서는 학년별로 평균점수가 비슷하게 결과가 나왔으며 집단간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이는 선행연구들과 다른 결과를 보

인다. 본 연구도구의 설문에서 ‘심정지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수 있다’,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상황에 맞는 응급처치를 실시할 수 있다’라는 질문에 낮은 점수가 아닌 높은 점수를 나타냈는데 1학년에서 4학년 모두가 반복된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결과라고 볼 때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대부분 신입생들은 고등학교 때 수행평가로 경험한 친구들이 많은 것으로 비추어 볼 때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해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응급상황 시 당황하지 않고 실천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체험중심의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직업안전’의 요인에서도 학년별로 집단간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문항의 예시를 살펴보면, ‘직업안전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안전교육에 참여하고 싶다’의 문항의 경우, 대부분의 예비유아교사는 긍정적인 인식을 한 것으로 사료된다. 유아교육현장은 안전사고의 변수가 항상 있는 곳임을 수업시간을 통해 배우게 된다. 안전에 대한 지식은 항상 누적화되어 있으며 적극적인 실천행위를 위한 교육의 개선이 요구된다. 이러한 결과는 안전교육을 수행할 기본적인 준비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며, 안전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충분히 안전사고 시 실천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예비유아교사를 위한 안전돌봄 실천행위 인식 함양을 위해 안전돌봄 실천행위가 누적화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이론과 실재를 병행할 수 있는 경험이 필요하다 여겨진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첫째, 안전돌봄 실천행위에 대해 예비유아교사와 현직유아교사를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양적분석뿐만 아니라 질적분석이 요구된다. 둘째, 예비유아교사의 안전돌봄 실천행위를 함양하기 위해서 교원양성기관에서부터 유아안전관련 교과과 비교과 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체험중심의 실습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예비유아교사를 위한 7대 영역에 대한 내용의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예비유아교사를

위한 유아안전에 대한 지식, 기술, 태도, 대처기술 등 충분한 교수학습매체 지원 및 개발에 대한 노력이 요구된다.

References

- [1] Doosan World Encyclopedia, ‘Safety’ <http://www.doopedia.do.kr>, 2020.
- [2] Ministry of Education, ‘Announcement of academic operation and support measures in the education field to respond to COVID-19’, March 2, Press release, Sejong: Ministry of Education, 2020.
- [3] Korea Consumer Agency, "Analysis of Child Safety Accident Trends in 2020" 2021.
- [4] J. H, Kim & L. K, Heo, ‘Relationship Between Safety Knowledge and Safe Behavior’,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No.96, pp.219-235, 2016.
- [5] K. H, Byon, ‘Safety Education Awareness and Safety Knowledge According to the Background Variables of Early Childhood Teacher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12 No.6, pp.3285-3295.
- [6] Copley, J. V. & Padron, Y. ‘Preparing teachers of young learners: Professional development of early childhood teachers in mathematics and science’, (Paper presented at the Forum of Early Childhood Science, Mathematics, and Technology Education, p. 6-8. Washington, DC), 1998.
- [7] J-K. Jeong and S-Y. Sung, ‘The Recognition, Practices and Knowledge of Child Care Teachers for Infant Safety’,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18, No.2, pp.125-149, 2011.
- [8] S-H. Kim, M-K. Lee and H-R. Song, ‘The safety awareness of childcare teachers according on the application of the 2019 revised Nuri curriculum’,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26, No.2, pp.241-275, 2021.
- [9] S. M, Kim, ‘Analysis of the Recognition and Demands of Pre-Early Childhood Teachers for Early Childhood Safety Education’, *The Journal*

- of Social Convergence Studies*, Vol.4, No.6, pp.107–116, 2021.
- [10] J. K, Kim, 'Enhancing Pre–Service Teachers' Safety Competence: Exploring the Impact of Utilizing Digital Media in Early Childhood Safety Education',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3 No.20, pp.249–267, 2023.
- [11] K. K, Kim and B. W, Shin, 'Childcare Teachers' Awareness and Demand for Safety Education for Infants and Young Children',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2, No.24, pp.85–95, 2022.
- [12] Y. J, Park and E. J. An, 'Study on Teachers' Perceptions of Safety after Nuri Curriculum Revision in 2019', *The Journal of Social Science*, Vol. 8, No. 2, pp. 59–80, 2023.
- [13] Y. J, Yim and D. L, Kim, 'The Effects of PBL Based Early childhood Safety Education class on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Self–efficiency, Learning Attitudes and Major commitment',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23, No. 7, 2023, pp. 869–882
- [14] J. H, Kong, J–E. Young, B–G. Heo, S. Heo, J–H. Seo, S–M. Moon, J–Y. Hong, H–Y. Lee and S–R. Kim, 'Development of a Tool to Measure Childcare Teachers' Safety Practice care Behavior', *Journal of The Health Care and Life Science*, Vol.10, No.2, pp.369–377, 2022.
- [15] G. Y, Jeong and H. S, Kim, 'Effects of Early Years Teachers' Perception about Safety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and Teacher Efficacy on their Safety Practice', *The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Vol.3 No.2. pp.1–23, 2018.
- [16] Murphy, P. K., Delli, L. M. and Edwards, M. N. 'The good teacher and good teaching: Comparing beliefs of second–grade student, preservice teachers, and inservice teacher', *The Journal of Experimental Education*, Vol.72, No.2, pp.69–92, 2004.
- [17] H. J, Kim, E. K, Jang and Y. S, Lee,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Experiential Safety Training for the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on the Role Performance of Safety Training, Self–Awareness, and Safety Knowledge Level', *Journal of Child Welfare and Development*, Vol.18, No.1, pp.1–16, 2020.
- [18] S. H, Park, E. M, Ko and S. Y, Kim, 'A Study on the Perception and Knowledge of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Child Care Teacher Course about Early Childhood Safety Education', *Journal of Parent Education*, vol.10, no.1, pp.273–290, 2018.